

韓國經濟의 發展模型

徐 相 喆*

目 次	
I. 序 論	4. 貿易과 工業化政策
II. 韓國經濟의 初期條件	IV. 發展模型의 過渡期的 特徵
III. 成長要因의 分析	1. 產業構造
1. 政府의 役割	2. 勞動力 및 雇傭
2. 後發國의 利得	3. 發展模型과 自立經濟
3. 投資와 海外貯蓄	

I. 序 論

經濟發展의 概念을 「長期的이고 지속적인 所得增大와 構造變化」라고 規定한다면,⁽¹⁾ 韓國經濟의 發展模型에 關한 分析은 아직 時期尚早인 것 같다. 왜냐하면 韓國經濟는 아직 十餘年의 發展史 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속적인 成長을 할 수 있었는가의 問題는 아마도 다음 世代의 經濟學者들이 다루어야 될 課題일 것이다.

現時點에 있어서 우리의 至大한 關心事는 이제까지의 經濟成長을 長期的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課業이라고 본다. 앞으로 어떠한 成長패턴을 追求해야만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發展模型」의 分析이 必要하게 된다.

흔히 「發展模型」은 計量的인 模型을 뜻한다. 그러나 本論文에서 使用하는 模型의 概念은 計量的인 것 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經濟發展의 過程을 體系的으로 說明해 보려는 것이다. 사실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社會全體의近代化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複合的인 要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計量模型으로서는 發展過程을 充分히 說明할 수 없다.

위와 같은 目的을 가지고 취급하고자 하는 韓國經濟의 發展模型分析은 대략 다음과 같은 順序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지난 十餘年間의 高度成長期에 나타난 韓國經濟의 特徵을 體系的으로 分析하겠다. 현재의 發展過程의 特徵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經濟理論面에 있어서의 既存模型과 비교하여 他國의 發展패턴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分析을 근거로 하여, 지속적인 成長을 達成하기 위한 韓國經濟의 發展方向과 앞으로의 挑

* 高麗大學校 教授

(1) 이 定義는 S. 쿠즈네츠 教授의 것임. S. Kuznets, *Six Lectures on Economic Growth*, pp. 13-14.

戰에 관하여 고찰하겠다.

發展模型의 國際比較에 있어서留意할 점은 各國間에 있어서 發展패턴의 同質性과 異質性의 問題이다. 所得水準과 기타 國際經濟環境面에 있어서는 多數의 開發途上諸國이 怡似한 發展與件을 갖고 있다. 그러나, 國內經濟의 規模, 賦存資源, 기타 社會·文化的側面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開發途上國間에는 뺨은 差가 있다. 各國間에 있어서 開發戰略의 差도 重要한 異質的 要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發展模型을 決定하는데 있어서의 同質的 要因과 異質的 要因의 複合的인 作用으로 發展패턴이 多樣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國際comparison를 하는 主目的은 發展與件이 비슷한 諸國과의 比較를 통하여 開發戰略의 差에서 오는 發展過程의 特徵을 究明하려는 테 있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同質的 成長要因과 異質的 要因의 區別이다.

開發途上諸國間에 상당한 發展與件의 差가 있다는 事實은 各國에 적합한 理論의 發展模型의 選別이 필요함을 뜻한다. 無分別한 發展model은 거의 無意味하다. 따라서 國際comparison와 마찬가지로 理論의 고찰에 있어서도 發展與件의 特殊性에 관한 分析이 필요하게 된다.

II. 韓國經濟의 初期條件

한 나라의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初期條件」(initial conditions)이란 經濟發展이 本格적으로 이루어지기 直前의 經濟·社會的 特徵을 말한다. 初期條件의 分析을 통하여 그 나라에 適合한 開發戰略과 發展패턴을 檢討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初期條件은 어느 期間에 해당될 것인가? 우선 經濟成長의 出發時期를 規定할 필요가 있다. 편의상 第一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시작된 1962年을 基準으로 하여 GNP 成長率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54—61年間에 年平均 GNP 成長率은 4.4%였으나 1962—73年間에는 10.1%로 늘어났고, 1人當 GNP 增加率은 같은 期間에 2.1%에서 8%로 늘어났다. 단일 1954—58年間의 戰後復舊期를 제외하면, 1959—61年間의 1人當 年平均 GNP 成長率은 불과 0.6%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GNP의 成長趨勢를 근거로 할 때 韓國經濟發展의 出發期를 1962年 頃으로 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初期條件은 1954—61期間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며, 특히 1959—61年間이 重要하다. 왜냐하면 戰後의 復舊事業을 經濟發展의 初期條件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1959—61年의 資料에 나타난 初期條件의 特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經濟의 二重構造와 過剩勞動力을 지적할 수 있다. 大多數의 勞動力은 生產性이 极度로 낮은

農業部門에 있는 반면에, 生產性이 높은 工業部門에는 雇傭의 機會가 极히 制限되어 있었다. 全體雇傭數의 65% 以上이 農水產業에 從事했는데 이 部門의 1人當 生產性은 鎌工業部門의 1/4에 불과하였다.⁽²⁾ 이와 같이 韓國經濟의 後進性은 특히 農水產部門의 低生產性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부존자원에 비한 過剩人口로 인하여 위와 같은 結果를 가져 왔다.⁽³⁾

여기서 뜻하는 過剩勞動力은 農業에 投入된 勞動力を 減少하더라도 總生產의 萎縮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6—63年과 1963—70年 사이에 農家經濟活動人口 및 成人換算 農業投入人口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農業生產이 增加해 온事實은 前期에 있어서 過剩勞動力의 存在를 立證하는 것이다.

表 1. 農業勞動成長率(年平均)

(단위 : %)

年 度	농업인구	농가경제인구	성인환산농가 경제활동인구	성인환산농가 성투입인구	성인환산영농 성투입인구
1956—63	1.87	1.41	1.59	1.22	3.63
1963—70	0.38	-0.65	-0.98	-2.22	-1.14

註 : (1) 表示된 年度는 3年平均의 中間年度임.

(2) 성인환산에는 農水產부 노동능률 적용.

資料 : 潘性純,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韓國開發研究院, 1974, p. 60.

둘째로, 開放經濟體制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當時의 貿易依存度는 20%이상이 있고 外資는 總投資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國際貿易의 役割은 주로 國內生產의 不足을 보충하는 役割을 하였고 여기서 發生되는 貿易赤字는 美國援助에 의해 주로 充當되었다.⁽⁴⁾ 비록 總投資의 대 GNP 比率이 11%밖에 되지 못했으나 國內貯蓄의 比重은 總投資의 1/4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事實만으로도 海外部門의 重要性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高度成長期間 이전부터 貿易 및 資本去來에 있어서 外國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었다.

이제 韓國經濟의 初期條件을 他開發途上國과 比較하기 위하여 表2가 마련되었다. 이 表에 기재된 諸國家는 韓國과 같이 過剩勞動力を 가졌다고 볼 수 있는 人口 1500萬 이상의 開發途上國이다. 1960年度의 資料比較에서 나타난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他國에 비하여 資本蓄積의 대 GNP 比率이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經濟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國民的努力이 他國에 비하여 미약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生產性의 測定은 1人當 附加價值로 하였음.

(3) Ranis 教授에 의하면, 1960年代 초에 人口/農地의 比率이 韓國은 대만보다 약 3倍 가량 높았다고 한다. G. Ranis, "The Role of the Industrial Sector in Korea's Transition to Economic Maturity," 1971, Economic Growth Center, Yale University, Center Discussion Paper No. 125.

(4) 1960—62年間 總輸入中 美國援助의 比重은 57%에達하였다.

表 2. 開發途上國의 經濟指標 (1960年)

(對 GNP 比率, %)

	國內總資本蓄積率	貿易			產業構造	
		輸出	輸入	貿易額	農業	工業
한국	11	3	13	10	37	14
인도	14	5	8	3	47	13
파키스탄	12	6	10	4	50	9
인도네시아	8	13	13	0	54	8
브라질	17	6	7	1	18	18
멕시코	17	11	13	2	16	19
필리핀	15	11	11	0	28	16
타일랜드	14	17	19	2	40	13
칠레비아	18	16	16	0	32	18

資料：UN국민소득年鑑，1974，III卷

둘째로, 韓國輸出의 對 GNP 比率이 낮은 반면, 貿易額은 他國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賦存資源이 빈약했던 韓國經濟의 輸出能力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外國援助 依存度가 他國에 비하여 훨씬 높았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韓國經濟의 初期條件은 人口의 크기가 비슷한 他開發途上國에 비하여도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III. 成長要因의 分析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經濟發展의 特徵은 高度成長・輸出爲主의 工業化等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이러한 特徵은 表3의 國際比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表2의 1960年度 資料

表 3. 開發途上國의 經濟指標 (1973年)

(對 GNP 比率 %)

	國內總資本 蓄積率	貿易			產業構造		GDP 年平均 增加率 (1960-73)	
		輸出	輸入	貿易額	農業	工業		
한국	24	32	35	3	26	26	9.5	7.0
인도	16	4	5	1	42	13	(60-69)	
파키스탄	12	15	20	5	35	14	5.4	19.
인도네시아	18	18	19	1	40	9	4.1	1.4
							(60-69)	
브라질	23	8	9	1	12	19	4.8	1.9
멕시코	21	9	10	1	10	23	7.0	3.5
필리핀	18	22	20	+2	28	17	5.4	2.3
타일랜드	20	22	23	1	31	17	7.8	4.5
칠레비아	18	15	14	+1	28	20	5.4	2.2

자료：UN 國民소득年鑑，1974.

에 가장 後進性을 나타냈던 韓國經濟는 13年後에 (表3) GNP 成長率이 가장 높았고, 그것을 뒤 받침하는 資本蓄積率, 輸出入比率, 工業部門의 比重등이 他國에 비하여 현저히 增加되었다. 불과 10餘年 사이에 發展의 速度가 가장 빠른 國家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結果를 가져온 主原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政府의 役割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이 1960年代 초부터 시작된 理由가 무엇인가? 흔히 外國援助가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外國援助額이 더 많았던 1950年代에 왜 시작되지 못했는가 하는 問題에 봉착하게 된다.

先進諸國의 經濟發展史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長期的으로 침체되어 온 經濟가 貧困의 惡循環에서 發展으로 飛躍하기 까지는 單純한 經濟的 要因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다. 社會・政治등을 包含하는 經濟外的 면에서의 發展이 長期間에 걸쳐 先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諸變化가 韓國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어, 韓國의 人的 資源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傳統的으로 韓國은 教育熱이 높은 國民으로써 1950年代 後半期에는 文盲率이 극히 낮고 適應力이 풍부한 勞動力を 갖게 되었다. 이러한 結果는 教育投資를 꾸준히 增加해 온 때문이며 결코 短期間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單一民族으로써 言語, 宗教, 階級등으로 인한 社會進出의 큰 장벽이 없었으며 비교적 平等했던 財產所有의 社會的 背景은 個個人의 經濟的 進取力を 강하게 하였다. 이것이 韓國의 企業家輩出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와 같이 經濟外的 發展與件이 成熟段階에 도달했기 때문에 政府는 開發戰略을 통하여 決定的인 成果를 거둘 수가 있었다. 發展初期에 있어서 政府의 가장 重要的 役割은 民間部門의 成長潛在力과 意慾을 發展課業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第一次五個年計劃을 계기로 실시된 諸開發政策과 誘引政策으로 바로 위와 같은 役割을 할 수가 있었다.⁽⁵⁾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에 대하여는 經濟成長初期에 있어서의 先導的 役割이 強調되어 왔다.⁽⁶⁾ 이러한 면에서는 韓國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 重要的 特徵은 政府主導의로 취해온 開發戰略・工業化 政策이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1960年代의 工業化戰略을 좀 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겠다. 開發途上國의 工業

(5) Adelman과 Morris 教授는 韓國經濟의 非經濟的 要因을 分析한 후, 「高水準의 社會・經濟發展 그룹」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I. Adelman &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1967.

(6) E.S. Mason, *Economic Planning in Underdeveloped Areas*, 1958, p. 48.

化에 관한 諸研究結果는 所得水準과 工業發展과의 正比例關係를 提示하고 있다. 체너리-휴즈 論文에 의하면 1人當 所得水準이 50弗에서 100弗로 점근함에 따라 國內工業의 發展이 시작되는데 주로 食料品, 섬유, 衣類等의 單純한 消費財를 生產하게 된다.⁽⁷⁾ 1人當 所得이 100弗이 넘게 되면 各國의 賦存資源 如何에 따라서 特化의 方向이 決定된다. 그런데 日本, 韓國, 대만과 같이 賦存資源이 貧弱한 나라일수록 輸出爲主의 工業化를 서두르게 된다는 것이다.

商品別 所得彈力度의 差로써 工業化와 所得水準과의 關係를 說明할 수도 있다. エン겔法則에 따라 一次產品의 彈力度가 二次產品보다 낮고, 輕工業製品보다 重化學工業製品(특히 中間財)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度가 높기 때문에 所得增大는 「一次產品→輕工業製品→重化學工業製品」의 순으로 需要構造의 比重이 높아나게 된다.⁽⁸⁾ 이와 같은 需要構造의 變化에 대해 처음에는 工產品輸入으로 充足되다가 輸入品의 國產代替가 생기고, 마침내는 輸出產業으로 育成된다.

이상과 같은 開發途上國 工業化의 一般論이 韓國經濟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韓國工業化는 消費財工業의 輸入代替로부터 시작하여 1960年代에 本格的인 輸出產業體制를 이룩한 것이다. 表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韓國工業化의 特徵은 輸入代替단계로부터 輸出產業으로의 轉換이 急速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表 4. 製造業 生產增加에 대한 寄與度 (단위 : %)

	1955—60	1960—63	1963—66	1966—68
輸出增大	5.1	6.2	29.4	13.0
輸入代替	24.2	0.9	14.4	-0.1

資料：金光錫 및 L.E. Westpal,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6, p. 223.

이제 政府가 취해 온 工業化의妥當性에 관하여 檢討해 보기로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初期에 韓國이 갖고 있던 發展模型의 選擇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韓國의 初期條件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過剩勞動力을 가진 二重構造經濟의 發展에 관한 模型으로써 잘 알려진 Fei-Ranis 模型이 있다.⁽⁹⁾ 이 模型이 提示하고 있는 成長 패턴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農業部門에 存在하고 있는 過剩勞動力を 生產性이 높은 工業部門에 移轉하는 것—工業發展—의 發展過程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工業發展에 필요한

(7) H. Chenery, and H. Hughes,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 Case of Industry," IBRD, Working Paper, no. 123.

(8) H. Chenery, "The Use of Interindustry Analysis in Development Programming", 1963.

(9) C.H. Fei and G. Ranis, *Development of Labor Surplus Economy*, 1964.

資本, 市場, 勞動力등의 前提條件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農業部門의 發展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페이－라니스 模型은 農業發展의 寄與를 바탕으로 한 工業化戰略을 主張한 것인데, 發展初期의 成敗를 판가름하는 農業發展에 관하여 그前提條件이 무엇이며 첫 出發을 達成할 수 있는 方法에 관하여는 거의 言及이 없는 것이 큰 短點이다.⁽¹⁰⁾

韓國의 初期條件에서와 같이 開放體制를 가진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海外部門의 役割을 감안하여 成長패턴을 決定해야 된다. 이에 관하여 라니스教授는 다음과 같은 一般論을 提示하였다.⁽¹¹⁾ 過剩勞動을 가진 開發途上國의 發展過程은 처음에 土地集約的인 輸出(land-intensive exports)로부터 出發하여 輸入代替(import substitution) 過程을 거치서 輸出代替(export substitution)段階에 突入하게 된다. 輸出代替는 처음에 勞動集約的인 部門으로부터 시작하여 技術集約的 部門, 다음에 資本集約的 部門으로 移轉된다. 라니스 教授에 의하면, 韓國의 경우는 처음부터 勞動集約的인 輸出에 突入함으로써 農業部門이 經濟發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이 部門의 發展不振은 輸入需要增大的 主原因이 되어 工業部門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工業部門에 주어진 輸入能力의 擴大任務는 마침내 比較優位性이 없는 分野까지 輸出產業으로 育成할 위험성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要約한 라니스教授의 模型은 韓國經濟의 發展패턴을 說明하는데 몇 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로, 經濟發展의 첫 出發을 가져오게 한 直接的인 原因을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풍부한 勞動力과 外資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與件은 1950年代에도 存在하고 있었기 때문에 發展이 시작된 直接的인 原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로, 工業化 過程에 있어서 構造的 變化의 要因을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勞動集約的인 輸出部門으로부터 다음 단계로 轉換되는 메카니즘을 充分히 說明하지 않고 있다. 세째로, 工業·農業部門間의 動態的 發展關係를 등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農業이 經濟發展의 出發當時에는 他部門의 부담이 될지라도 他部門의 發展은 후에 農業成長의 原動力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¹²⁾ 페이－라니스 模型의 發展順序는 正反對로 工業發展을 통한 農業發展도 可能하다는 것이다.

페이－라니스 模型의 檢討에서 分明한 것은, 韓國經濟가 가졌던 初期條件下에서는 雇傭擴大와 勞動生產性 增大가 가장 重要한 開發目標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目標達成을

(10) 페이－라니스 模型과 같은 二重構造 經濟發展에 관한 評價는 다음의 論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Dale W. Jorgenson, "Testing Alternative Theories of the Development of a Dual Economy", in Adelman and Thorbecke (eds.), *The Theory and Design of Economic Development*, 1966.

(11) G. Ranis, "The Role of the Industrial Sector in Korea's Transition to Economic Maturity, Yale University, Economic Growth Center, Discussion Paper, no. 125.

(12) W.A. Lewis,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British West Indies, *Caribbean Economic Review*, May, 1950.

위하여는 工業化가 經濟發展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後發國의 利得

開發途上國의 工業化戰略을 決定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先進諸國의 經驗을 活用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거센크론 教授의 工業發展論을 먼저 檢討할 필요가 있다.⁽¹³⁾ 이 理論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 骨子만 要約하겠다.

世界的으로 工業發展은 英國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독일, 미국, 소련, 日本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各國에 있어서 工業화의 速度는 出發順位와 反比例하였다. 이와 같은 歷史的事實을 근거로 하여 거센크론 教授는 工業發展의 出發時期가 他後進國에 비하여 늦으면 늦을수록 工業화의 速度가 빨라질 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그 理由는 工業화의 出發時期가 늦을수록 先進諸國으로부터 導入할 수 있는 近代技術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거센크론 教授는 工業化過程에 있어서 「代替패턴」(pattern of substitution)의 概念을 活用하였다.⁽¹⁴⁾ 즉 國家間에 있어서 工業화의 時期가 다르다는 事實은 經濟發展에 관한 初期條件의 性格이 다름을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各國間에 있어서同一한 成長패턴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各國經濟의 初期條件에 따라 工業화의 後發國으로서 얻을 수 있는 利得을 極大化할 수 있는 發展패턴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거센크론 教授의 替代패턴 概念이다.

이상과 같은 거센크론 理論은 後發國工業化에 많이 적용되었다.⁽¹⁵⁾ 그러나 이 理論은 韓國經濟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몇 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로, 先進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에 있어서 必要한前提條件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은 누구나 다 後發國으로서의 잠재적인 利得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少數의 國家만이 工業化에 成功하고 있는지를 究明할 필요가 있다. 즉, 技術導入등으로 後發國의 利得을 極大化하기 위하여는 一定한前提條件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前提條件의 內容을 具體的으로는 규정할 수 없겠으나 單純한 經濟的 要素外에 社會·文化的인 면이 포함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後發國으로서의 制約條件도 同時に 생각해야 되겠다. 工業化的始發期가 지연되

(13) A.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B.F. Hoselitz (ed.), *The Progress of Underdeveloped Areas*, 1952.

(14) A. Gerschenkron, "Reflection on the Concept of 'Prerequisites' of Modern Industrialization", 1957.

(15) H. Rosovsky, *Capital Formations in Japan, 1868-1940*, p. 57. T. Watanabe, "Industrialization, Technological Progress, and Dual Structure", in Klein and Ohkawa (eds.), *Economic Growth: The Japanese Experience since the Meiji Era*, 1968.

어 왔다는事實은 그만큼 그 나라의傳統的인制約條件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後進性을除去하기 위해서는經濟運營面에 있어서 획기적인制度的變化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센크론教授는工業化的後發國일수록初期에는政府의役割이 강하게作用해야 된다고強調하지만,具體的으로 어떤役割이必要한가에 대해서는分析이不充分하다.

셋째로, 거센크론理論은 주로近代工業의發展에局限되어 있으므로, 이를經濟發展에 적용시키기 위하여는他部門과의有機的關係가保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經濟發展의 궁극적목적은經濟全般에 걸친成長에 있기 때문이다.極少部門만의成長을 가져오는工業化는기형적인二重構造을深化시키는結果밖에되지 못한다.先進國으로부터의技術導入을後發國의利點으로보는것은타당하지만,國內實情에맞은技術導入의可能性問題,國內技術開發과의유대관계등에관한analysis이필요하다.

위에서지적된바와같이거센크론theory을신천에옮기려할때「具體的」內容이많이補完되어야하겠지만,이theory의가장큰공헌은「後發國의利得」을強調한점이다.先進國과의發展갭이커질수록거센크론이말하는「後發國의利得」이増大되며,따라서先·後進國간의갭은後者의經濟發展에重要한原動力으로活用할수있다는것이다.

그동안韓國經濟는거센크론theory의未備點을보완하면서「後發國의利得」을活用하는開發戰略을취해왔다라고할수있다.對外指向의開發戰略이바로그러한것이다.그具體的인內容은資本과貿易으로나누어檢討하겠다.

3. 投資와海外貯蓄

1960年代의高度成長은물론供給과需要面에서說明할수있는데,投資率의増大는供給面에서의가장important한要素로나타났다.國內資本蓄積의대GNP비율을보면,1954—61년의年平均12.0%로부터계속증가하여1973年에는26%에달했다.그런데高度成長期間에있어서資本·產出量增加比率(ICOR)은約2.3程度로크게變化하지않았으므로⁽¹⁶⁾生産増大의主原因으로써投資率의增加를지적할수있다.이와같이急增된投資의財源을보면表5와같다.1962年에總投資의83%까지차지했던海外貯蓄은1973年에15%로감소되었다.이表에서관찰할수있는몇가지特徵을보면,첫째로發展初期에있어서海外貯蓄

(16) 產業別ICOR(M. Roemer, "Nature of the Growth Path, 1953—74", KDI) :

	1950年代	1960年代
農業	0.82	1.30
製造業	2.58	1.44
기타	3.29	

表 5. 貯 蓄 率 (對 GNP 比率)

	總 貯 蓄 (I)	國內 貯 蓄 (II)	海外 貯 蓄 (III)	III/I (%)
1962	13.0	1.6	10.8	83
1963	18.5	6.3	10.7	58
1964	14.6	7.3	7.1	49
1965	15.1	7.5	6.4	42
1966	21.7	11.8	8.5	39
1967	22.1	11.9	8.9	40
1968	26.8	13.6	11.6	43
1969	29.8	17.5	11.0	37
1970	27.2	16.3	9.7	36
1971	25.6	14.5	11.3	44
1972	20.9	15.0	5.6	27
1973	26.2	22.1	4.0	15

자료 : Economic Planning Board, *Major Statistics of Korean Economy*, 1975.

의 重要性이다. 특히, 總輸入가운데 海外貯蓄의 比重이 62% (1963—64年)에 달하였음을, 國內貯蓄의 不足을 보충하는 役割의에 經濟開發을 위한 輸入을 可能하게 만든 海外貯蓄의 二重役割을 立證하는 것이다.

둘째로, 國內貯蓄의 比重이 投資率의 上昇과 함께 급격히 늘어난 점이다. 특히 重要한 變化는 國內貯蓄가운데 政府貯蓄의 寄與度가 커다는 것이다. 總投資의 15%에 가까운 陰의 貯蓄을 해 오던 政府가 60年代 後半期부터는 總投資의 20%이상을 저축하였다. 정부저축의 희기적인 증대는 GNP에 대한 政府支出의 相對的 감소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더 重要한 要因은 政府歲入의 增加때문이었다. 또한 1960年代 末期부터는 家計貯蓄도 總投資의 10~30%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高度成長은 積極적으로 總投資의 自立度를 向上시킬 수 있었다.

세째로, 위에서 지적한 國內貯蓄의 急增에도 불구하고, 投資財源의 欠은 아직도 他國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6에서 보면 이와 같은 特徵이 分明하다. 이와같이 韓國經濟에 있어서는 아직도 海外貯蓄의 役割이 重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4. 貿易과 工業化政策

對外指向의 工業化政策은 貿易擴大를 통하여 後發國의 利得을 活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國內總支出에 있어서 輸出의 比重이 1963年的 3.5%에서 1973年 29.4%로 增加된 것만으로도 總需要에 있어서 輸出의 重要性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輸出為主의 工業化

表 6. 開發途上國의 資源갭 (對 GNP 比率; 1972年)

資 源 갭	國 家
5% 以上	한국
3.0—4.9%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1.0—2.9%	파키스탄, 콜롬비아,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1% 以下	인디아, 멕시코, 필리핀

자료 :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73.

는 國際競爭力を 重要視하게 했고 그 결과로 資本·技術面에 있어서의 後發國의 利得을 增大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後進諸國과의 貿易去來에 있어서 發展의 段階에 따라 한 商品의 比較優位가 開發途上國에 移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理論의 代表的인 것으로 Vernon教授의 product cycle論, 日本 赤松要 教授의 「雁行패턴」論 등이 있다.⁽¹⁷⁾ 그 骨子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後發工業國家의 경우, 先發工業國에서 開發한 新製品을 輸入하면서 技術의 習得過程을 거쳐 生產規模의 經濟性을 達成하게 되면 生產費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輸入商品에 대한 國內生產으로부터 出發하여 順次적으로 輸出이 可能하게 된다. 이와 같이 貿易을 통해 先進國의 技術導入으로 比較優位 產業을 育成할 수 있게 된다.

貿易을 통한 總需要의 增大는 生產增加의 強力한 誘因要素로 作用한다. 韓國製造業 部門의 경우 1960/62—1972/74年 사이에 ICOR가 2.58로부터 1.44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生產施設의 利用度增大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總需要의 增大는 總生産物의 構成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韓國經濟에 있어서 製造業部門의 比重이 크게 擴大된 것도 海外需要의 자극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輸出爲主의 工業化가 後發國의 利得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몇 가지 理由를 알아 보기로 하겠다. 後發工業國이 先發工業國으로부터 技術導入에 成功하기 위하여는 後發國의 自體技術이 一定한 水準에 도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後發國의 發展初期에는 이와 같은 技術水準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初期의 習得過程(learning process)이 重要하다. 그런데, 輸出을 主目的으로 하는 工業化는 發展初期에 必要한 習得過程을 가장 效果的으로 提供해 준다. 單純勞動集約的 商品만을 輸出하던 韓國이 輸出商品의 高度化에 成功할 수 있었던 理由는 바로 習得過程을 通해서 얻은 比較優位性 때문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貿易의 動態的

(17)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K. Akamatsu,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veloping Economies*, 1962.

利得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習得過程을 거쳐서 國內技術水準이 向上되면 後發國의 利得을 極大化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輸出爲主의 工業化는 所得增大와 國內需要增大를 통하여 他部門의 發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예를 들이 農業部門의 成長을 검토하겠다. 表7에서 보면 年平均 農產物 生產增加率은 1956~63年間의 3.66%로부터 1963~70年間에 4.12%로 上昇하였다. 물론 工業部門의 成長率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成長率이지만, 農業生產要素의 供給이 相對的으로 非彈力的

表 7. 類別農產物生產의 成長率 (%)

年 度	平 均	食 糧 作 物						
		米 穀	麥 類	豆 類	薯 類	雜 穀	진매작물	
1956~70	3.53 (3.89)	2.86 (3.22)	2.46 (2.59)	3.82 (4.12)	3.20 (3.29)	4.07 (6.22)	0.83 (2.04)	7.72 (10.37)
1956~63	4.91 (3.66)	5.61 (3.77)	4.44 (3.56)	8.08 (2.68)	1.02 (1.27)	10.55 (9.64)	8.25 (3.72)	7.82 (12.10)
1963~70	2.16 (4.12)	0.19 (2.66)	0.51 (1.62)	-0.26 (5.57)	5.43 (5.36)	-2.02 (2.91)	-6.08 (0.40)	7.62 (8.67)

年 度	果 實	채 소	特用作物	副產物	畜 產		잡 전	苗 木
					家畜	畜產物		
1956~70	7.49 (8.97)	6.60 (6.23)	-0.15 (2.15)	3.53 (3.25)	5.74 (5.74)	4.66 (3.40)	10.05 (13.17)	10.78 (10.04)
1956~63	6.67 (9.65)	1.08 (1.54)	-8.96 (-5.80)	4.91 (7.21)	2.03 (5.62)	1.13 (4.49)	6.35 (11.15)	-1.34 (0.26)
1963~70	8.33 (8.30)	12.43 (11.14)	9.52 (10.76)	2.16 (-0.57)	9.58 (5.85)	8.31 (2.32)	13.87 (15.23)	24.39 (20.77)

註: 1) ()안의 數値은 農產物品目別價格指數로 대플레이트하였음.

2) 年度는 3年間平均의 中間年度임.

자료: 潘性紹,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한국개발연구원, 1974, p. 33.

임을 감안한다면 國際水準에 비해 큰 손색은 없는 成長率이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農業生產增大的 重要한 役割은 食糧作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需要의 所得彈力度가 비교적 높은 特用作物, 畜產, 채소류 등과 輸出農產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의 農業發展은 工業發展과 직결되는 商業的 農業生產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IV. 發展模型의 過渡期의 特徵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經濟發展이란 長期的으로 지속되는 所得增大를 뜻하는데 비하여

韓國經濟의 成長은 十餘年의 短은 체험에 불과하다. 특히 1970年代의 後半期는 第四次五個年計劃과 더불어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시도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韓國經濟發展의 特徵으로 오늘날 관찰할 수 있는 諸樣相은 多分히 過渡期의 性格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國際競爭力を 가진 商品을 輸出하기 위하여, 輸入原資材 또는 中間財를 加工하는 工業構造는 工業化初期에 戰略的으로 계획된 段階이지 결코 長期目標가 될 수는 없다. 韓國經濟의 成長패턴을 究明함에 있어서는 過渡期의 性格과 長期的 現象의 區分이 必要하다.

현재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基本的인 開發問題는 지난 十餘年間의 高度成長을 지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課題일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現在의 過渡期의 性格에 관한 分析이 필요하다.

1. 產業構造

지난 十餘年에 걸쳐 追求하여 온 開發戰略은 後發工業國으로서의 利得을 活用하는데 대단히 效果的이었다. 그 結果로, 高度成長과 產業構造의 特化가 促進되어 왔다. 그 동안 政府의 積극적인 輸出支援政策으로 靜態的인 比較優位產業을 育成하는데 注力하는 한편, 動態的인 觀點에서 成長潛在力의 開發에도 힘써 왔다. 특히 習得過程의 効率化를 위하여 比較優位概念을 初期하여 育成產業을 選定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複合的인 要因에 의하여 이루어진 現 產業構造의 特徵을 要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發展初期에는 무엇보다도 比較優位性을 強調해 왔기 때문에 輸入依存度가 높은 產業構造가 이루워졌다. 過剩勞動力을 가진 韓國經濟에 있어서의 比較優位는 自然的으로 少數의 勞動集約的 產業에 集中되었다. 結果적으로 原資材 및 中間財의 輸入依存度가 증가하여 貿易收支의 向上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產業構造의 發展方向으로 第四次五個年計劃에서는 機械, 電子, 造船등의 重化學 工業部門을 중점적으로 育成하여 產業構造의 自立度를 높이고 貿易收支의 均衡을 達成할 것을 提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目的이 達成되면 製造業가운데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1975년의 42.8%에서 81년에는 51.5%로 늘어나며, 同期間에 總輸出중 重化學製品의 比重은 29.4%에서 47.8%로 增加될 계획이다.

이와 같이 產業構造의 高度化는 輸出增大를 통한 貿易收支均衡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런데 先進國의 예로는 重化學工業에 比較優位를 가지려면 長期間의 習得過程이 필요하며 이期間에는 오히려 輸入需要가 增加될 可能성이 높후하다. 따라서

產業構造高度化의 初期段階에서는 貿易收支의 均衡達成이 한층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여기서 貿易收支의 均衡을 達成하겠다고 고집한다면 重化學製品의 輸入規制등을 強化하여 輕工業製品의 國際競爭力を 低下시키는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問題는 靜態的인 比較優位性과 動態的 侧面에서의 成長潛在力開發을 어떻게 調和시키느냐는 것이다. 比較優位性만을 強調하면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차질이 생기고, 成長目標만을 고집하면 國際收支의 惡化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產業構造高度化는 比較優位性을 회생하지 않으면서 幼稚產業의 育成을 적극 장려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幼稚產業의 選定問題인데 이는 오직 投資事業의 個別審查(project-by-project approach)로서만 可能하다.

產業構造의 高度化에 있어서 특히 重要한 것은 要素價格의 歪曲을 是正하는 일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要素價格의 歪曲은 投資事業의 企業收益性과 社會收益性間에 隔差를 유발하여 企業의 投資活動이 社會的으로는 非效率的인 資源分配을 가져 올 可能性이 많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輸出增大의 利得보다는 費用面에서의 손실이 더 크게 된다.⁽¹⁸⁾ 그런데, 外資導入과 輸出爲主의 工業化政策이 長期間 계속되면 既得利權者(vested interest group)이 생겨 價格政策의 伸縮性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人口가 많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國際分業에 참여하는데 큰 制約을 받게 된다. 우선 많은 勞動力이 輸出產業에 모두 참여한다면, 輸出品의 國際市場占有 rate이 增加하여 점차적으로 非彈力的인 需要를 갖게 되며, 成長의 限界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輸出을 통한 生產構造의 特化는 막대한 輸入需要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人口가 많은 경우, 항상 安定된 供給을 確保할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輸出의 大部分이 消費財인 경우는 輸出產業이 國內의 消費需要를 充足시켜야 하기 때문에 輸出對象國 消費 패턴을 國내에 진파하는 効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國내의 消費를 助長하고 저축을 낮추는 結果를 가져 오게 된다. 國내의 適正 消費水準에 비하여 過多한 生產構造로 인한 不均衡을 초래하게 되기 쉽다.

國際分業에 의한 開發途上國의 產業構造는 비록 product cycle論에 따라 發展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先進諸國에의 依存度가 크게 나타나 있다. 특히 外國人 直接・合作의 경우에 依存度가 심하다. 전형적인 product cycle論과는 달리, 開發途上國의 工業化는 한商品生產의 全過程을 生產하는 것이 아니라 先進國으로부터 未完成品을 中間財로 수입하여 勞動

(18) 競爭商品의 貿易에서 얻은 得失에 관한 分析으로는 Wontack Hong,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KDI, 1975, pp. 112-123.

表 8. 產業別 就業人口와 그構成比, 國民總生產 및 勞動生產性의 推移

(단위 : GNP는 1970년도 不變價格, 10億원)

註：GNP는 「國民所得年報」에 의하고,勞動者數는 「經濟活動人口調查」에 의함.

資料來源：金秀坤，『勞動供給與失業構造』，韓國開發研究院，1976，pp. 54—55。

集約的인 生產過程만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¹⁹⁾ 이와 같은 構造가 長期的으로 계속된다면, 先進國에 예속된 構造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自體技術開發등으로 한 商品生產의 全過程에서 比較優位性을 確保할 수 있는 工業構造만이 自立經濟를 達成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 될 것이다.

2. 勞動力 및 雇傭

1960年代의 高度成長期에는 雇傭增大와 勞動生產性의 向上을 同時에 達成할 수 있었다.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74년간에 年平均 就業人員 增加率은 3.8%, 勞動生產性 增加率은 6.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變化는 주로 生產性이 높은 製造業部門의 擴大로 이루어졌다. 1963年에 全產業 就業人員의 8%에 불과했던 이 部門은 1974年에 17.4%에 달했고 年平均 7.2%의 勞動生產性 增加率을 보였다. 또한 1963年에 農業部門 1人當 附加價值의 2.5倍였던 工業部門은 1974年에 3.7倍로 部門간의 갭이 擴大되었다.

全產業 附加價值에 대 한 就業彈力性은 1966—7年的 0.54로부터 1970—74년에는 0.27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產業構造의 高度化는 相對的으로 資本集約度를 높이는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에 生產增大的 雇傭效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人口構造는 勞動力人口가 相對的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四次五個年期間中 人口增加率 1.6%(年平均)에 비하여 經濟活動人口는 3.1%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1970—74년의 就業彈力性을 적용하면, 새로운 勞動力만을 흡수하기 위하여 年平均 12%이상의 GNP 成長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高度의 成長率이 制限된 自然條件下에서 長期間 계속될 수는 없다. 앞으로는 雇傭增大 目標와 生產增大 目標의 상충이 發生할 수 있다. 1960年代와 같이 高度成長을 통한 雇傭問題의 解決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國內需要의 增大와 內需業產의 擴大를 통한 生產構造의 점차적인 改編이 필요하게 된다. 雇傭面에서 要請되는 就業彈力性的 增加와 產業構造面에서 高度화의 必要性을 어떻게 調和할 것인가의 어려운 課題에 韓國經濟는 直面하게 될 것이다.

韓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勞動의 役割도 根本的으로 달라질 展望이다. 表9에서 보면, 他國에 비하여 韓國의 實質賃金은 1968—69년경부터 上昇率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세는 주로 技能職의 賃金上昇에 의한 것이며, 結果的으로 職種別 賃金差를 더욱 크게 하였다(表10 참조). 이와 같은 現象은 勞動市場에 있어서 需要 및 供

(19) 電子工業의 예 : Sangchul Suh, "Development of a New Industry through Exports; the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in Hong and Krueger (eds.),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KDI, 1975.

(20) 金秀坤,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76, p. 58.

給構造上의 不均衡에서 發生된다. 즉, 技能工에 대한 需要增加에 비하여 供給이 未達되고 있다는 것이다.⁽²¹⁾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60年後에 比較優位의 源泉이었던 人的資源面에 있어서도 韓國經濟는 不利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풍부한 勞動力만으로는 國際競爭力を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勞動供給을 어떻게 하면 急變하는 需要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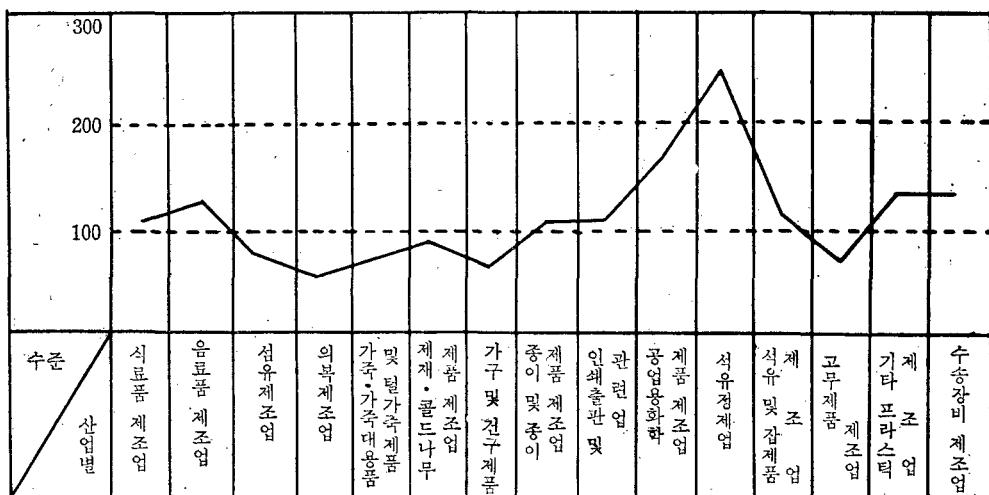
表 9. 實質賃金指數의 國際比較

(指數 : 1960=100)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필리핀	멕시코
19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5	95.5	1039.1	7.8	107.6	112.3	108.0	98.1	110.2
1966	101.6	106.7	106.8	110.0	114.9	115.2	101.4	110.4
1967	112.3	109.1	10.8	114.6	113.5	124.7	100.0	113.6
1968	128.4	114.9	113.2	123.3	118.7	136.9	100.7	116.8
1969	153.1	122.3	115.6	128.7	130.2	152.5	102.2	119.2
1970	165.3	127.3	123.6	135.4	141.2	163.9	109.7	119.1
1971	177.7	135.0	122.5	142.7	147.7	175.1	106.4	125.5
1972	184.9	140.4	132.5	152.3	150.9	205.9	n.a.	127.5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73.

表 10. 제조업의 임금수준 (1973년)



造에一致도록 하느냐의 새로운 課題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勞動市場의 不均衡으로 인한 賃金上昇은 生產技術의 選擇에도 歪曲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만일 上昇하는 賃金에 비하여 資本에 대한 利子率은 政策的으로一定水

(21) 1976—81年間의 技能工(技術者 포함)의 不足數는 50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金秀坤,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한국개발연구원, 1976, p. 45.

準을 維持한다면, 賃金 대 利子率의 比率(wage-rental ratio)이 커지게 되며, 이것은 勞動을 資本으로 代替하려는 強力한 誘因要素로 作用하게 된다. 表11에서 보면, 1970年代에 들어와서 製造業 部門의 資本／勞動比率이 急激히 上어났는데, 同期間에 급격히 上어난 賃金－利子比率이 적어도 部分的으로나마 作用했을 것이 分明하다.

表 11. 製造業部門의 資本－勞動 및 賃金－利子 比率

	資本－勞動 ⁽¹⁾ 比 率	賃金－利子 ⁽²⁾ 比 率 (指數 : 1970=100)
1963	1.00	61
1964	—	57
1965	—	59
1966	1.81	47
1967	1.62	57
1968	1.72	62
1969	1.86	86
1970	1.95	100
1971	2.44	116
1972	2.50	131
1973	3.15	164
1974	—	180

자료 : Wontack Hong,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KDI. M. Roemer,
“Nature of the Growth Path, 1953—74”, KDI.

3. 發展模型과 自立經濟

韓國經濟의 發展模型은 궁극적으로는 自立經濟의 구축으로 歸結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自立經濟의 內容은 다음의 두 가지 要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첫째로 雇傭問題를 解決하면서 所得水準의 向上을 도모할 수 있는 對內的 均衡 成長과, 둘째로 後發工業國으로서의 利得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國際經濟來來를 擴大하되 對外均衡을 達成하는 것이다. 以上의 두 要素 가운데 어느 한 가지 目的만을 達成한다면 自立經濟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課題는 물론 長期間에 걸쳐서만 完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韓國經濟는 지난 十餘年의 高度成長을 통하여 對內的 均衡成長에 優先順位를 두는 開發戰略을 취하여 왔다. 戰略的으로 後發工業國의 利得을 最大限으로 活用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對外均衡問題는 一時의이나마 惡化되었다. 本論文에서 취급한 韓國의 發展model도 주로 對內的 均衡成長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韓國經濟發展을 長期的인 인목에서 볼 때 다음段階은 對外均衡의 目標達成에 置重해야 된다는 것이 分明하다. 그래야만 發展model의 궁극적인 目的인 自立經濟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1970年代 後半期부터 韓國經濟는 發

展의 第二段階에 突入한다고 볼 수 있다. 第四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도 이러한 長期的 見地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發展의 第二段階에서는 前段階에 비하여 同質性과 異質性을 同時에 찾아 볼 수 있다. 同質的인 要素로서는 무엇보다도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을 지적할 수 있다. 韓國經濟가 他先進諸國과의 比較에서 گ임이 存在하는 한 後發工業國으로써의 利得을 活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開發戰略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韓國經濟發展의 長期的 비전을 신천에 끌길 수 있는 政治·社會的 環境이 保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第二段階의 異質的 諸要素로 인하여 앞으로의 韓國經濟는 새로운 成長潛在力を 發展시키고 새로운 制約條件에 爭작하게 되었다. 이미 지적한 바 있는 產業構造의 高度化問題, 勞動의 새로운 役割등은 異質要素의 具體的 예에 분파하다. 第二段階의 異質性은 經濟外의 環境의 變化도 必要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政府主導型의 經濟發展으로부터 政府支援型으로 轉換하는 問題, 創意力を 가진 企業家活動의 擴大問題, 經濟制度의 改編問題등을 지적할 수 있다.

結論的으로 말하자면, 韓國經濟發展의 第二段階은 새로운 成長潛在力과 制約條件을 갖고 출發하는데 이러한 要素들은 대부분 第一段階에서 誘發된 것이다. 開發政策面에 있어서 第一段階가 「極大化」의 目標爲主였다면, 第二段階에서는 相衝되는 諸目標間의 鈑壘적인 調和(optimum trade-off)爲主로 政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經濟發展의 第二段階가 長期的 發展過程의 一局面임을 생각할 때, 近視眼的인 目標設定으로 인한 成長 패턴의 歪曲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

〈討 論〉

朴 昇 教授*의 論評

林鍾哲 教授의 發表에 대하여 :

1. 1950年代와 60年代 사이에 經濟開發에 있어 政府의 役割에 變化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經濟體制의 差로 보아야 한 것인지 經濟政策의 差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고 본다. 主要한 差異點이란 開發意志(development will)의 濃度差와 計劃執行力의 強度差다 하겠는데 이것을 自由經濟와 混合經濟라는 經濟體制의 變化로 보는 것은 다소 無理가 아닌가 생각된다. 市場經濟體制下의 政府의 役割은 政府가 價格機能의 作用正常化에 注力하는 美國型, 政府가 租稅를 通하여 福祉增進에 主力하는 北歐型, 그리고 行政權力에 의하여 成長指向的으로(行政指導를 통하여) 정부가 介入하는 日本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日本型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政策方向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2. 林教授는 여러가지 高度成長의 그늘을 列舉하고 이에 대한 價值判斷은 留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그늘이 不可避한 必要惡인지의 如否에 있다고 본다. 대체로 開發初期에 이러한 그늘은 必要惡이 되는 경우가 많고 開發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二重構造는 不必要惡이 되어 除去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러한 陰影이 開發을 위하여 不可避했다고 認定되며 다만 開發이 상당히 進展된 現時點에서 볼 때 앞으로는 이러한 그늘이 계속 合理化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徐相喆 教授의 發表에 대하여 :

1. 우리나라의 開發模型은 지엽적인 문제에는 差가 있지만 基本的으로는 Nurkse, Lewis, Fei-Ranis로 연결되는 「過剩人口에 의한 開發模型」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다른 나라와 比較해서 韓國經濟開發이 成功的이었던 重要한 要因중의 하나는 外資에

* 中央大學校 教授

의한 輸入代替가 輸出代替로 前進할 수 있었다는 데 있음은 徐教授도 적절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失敗하고 유독 韓國에서만 可能했느냐에 대한 해답이 없다. 이에 대한 解答은 外資에는 市場指向型(market-oriented), 資源指向型(resource-oriented), 費用指向型(cost-oriented) 등 세 형태가 있는데 費用指向型外資만이 輸入代替에서 輸出代替로의 進展을 가능케 하며 한국의 外資는 바로 이러한 外資였으며 이러한 외자가 한국에 導入될 수 있었던 것은 低價良質의 勞動力 때문이라고 본다.

3. 外資는 一般的으로 勞動所得分配率을 높인다고 外資理論은 밝혀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外資主導型 成長過程에서 分配過程을 보면 資本所得分配率이 계속 上昇하여 왔다. 그 理由는 勞動의 不等價交換 즉 企業部門의 限界生產力 보다 낮은 勞賃支給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그동안 강제저축 중심의 우리나라 内資動員體制의 基本이 되었다고 본다.

4. 고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企業의 立場에서 본 水平的 勞動供給線의 利點 즉 labor advantage는 減滅하고 있으며 한편 外債償還負擔이 본격화함에 따라 外資의 純投資效果는 지금의 陽에서 제 4 차 5개년 계획 目標年度에는 陰으로 전환되어 이를 國內貯蓄으로 매꾸어야 할 負擔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각별한 開發政策의 조정에 성공하지 않는 한 成長率이 鈍化할 수 밖에 없는 轉換點에 서 있다고 본다.

潘性紘 教授*의 論評

林鍾哲教授는 韓國의 經濟成長이란 題下에 經濟成長의 概觀과 經濟體制 및 經濟政策을 논하고 있다.

林教授는 國民所得中 勞動의 分配分이 1961년 이후에 急激히 低下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勞動의 分配分에 대한 定義가 明白하지 못하다. 특히 非法人所得과 農業所得을 전부 勞動所得에 包含시키고 있는 것으로 理解되는데, 이들 所得은 勞動, 資本 및 土地에게 歸屬될 所得의 綜合인 것이다. 本人의 推計로는 農業에 있어서의 勞動의 分配率은 약 37.8%에 不過하며, 土地의 分配率이 43.6% 그리고 資本의 分配率이 18.6%이다. 林教授는 農工間 相對所得을 1963년의 100 : 209에서 1975년에는 100 : 219.3으로 그 隔差가擴大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高度成長의 陰影으로 推摘하고 있다. 이 比率은 각 產業에從事하고 있는 勞動者들의 賃金率의 比較라고 理解된다. 그러나 農民의 所得源泉은 勞動뿐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아니라 土地와 其他 農業資本이 包含된다. 따라서 所得의 比較는 家計所得에 基礎를 두어야 할 것이다. 家計所得을 比較할 때 農家所得은 도시근로자 家計所得에 비하여 1968년 이래 相對的으로 向上되어 1975년에는 거의 같은 水準에 到達하였다. 물론 都市의 資本家들과 農家の 所得隔差는 擴大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林教授는 實質賃金의 上昇率이 勞動生產性의 上昇率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實質賃金이 相對的으로 下落하였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사실 勞動生產性은 個別資源의 生產性 (partial productivity)으로서 이는 勞動自體의 生產性變化뿐 아니라 勞動과 結付되는 다른 生產要素의 量的 變化 즉 生產要素의 結合比率에 따라 變化한다. 勞動力의 資本裝備率이 增加하면 勞動의 本來의 生產性은 增加되지 않은데도 勞動生產性이 增加된 것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技術의 發達이 非中立的인 경우에는 勞動의 平均生產性에 의해서 實質賃金을 決定할 수는 없다. 따라서 勞動生產性賃金의 下落이 實質賃金의 下落이라고 主張할 수는 없다. 過去 10년간에 있어서 賃金의 上昇率은 資本用役價格의 上昇率보다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徐相喆 教授는 韓國經濟發展模型에서 開發의 初期條件으로 過剩 勞動力의 存在를 認定하고 Gerschenkron 理論의 未備點을 보완하면서 「後發國의 利得」을 活用하는 開發戰略을 樹立執行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政府의 主導的 役割下에서 對外依存의 輸出產業을 為主로 한 工業化政策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開發에 必要한 投資資源을 初期에는 海外貯蓄에 依存하다가 漸次 國內貯蓄에의 依存度를 높이는 方向으로 推進되고 있다고 主張한다.

徐教授는 Fei-Ranis 教授에 의한 韓國經濟發展 패턴의 說明에 대하여 몇 가지의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으나 여기에 基本的인 批判이 缺如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라니스教授에 의하면 韓國의 경우는 처음부터 勞動集約的인 輸出에 突入함으로서 農業部門이 經濟發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이 部門의 發展不振은 輸入需要增大的 主原因이 되어 工業部門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徐教授는 이에 대한 批判이 없기 때문에 이를 首肯하는 것으로 認定된다. 우리나라의 勞動集約的인 輸出產業을 先導로 한 工業化로 經濟發展을 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輸出에 의한 純稼得額은 大部分 勞動에 歸屬될 部分이다. 따라서 輸出을 生產要素別로 보면 우리는 勞動을 輸出하여 成長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勞動力を 低廉한 賃金으로 供給할 수 있었던 것은 農村에서 過剩勞動力を 扶養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輸出增大를 可能케 한 低賃金政策 또한 勞動者의 基本生計手段인 農產物의 低價格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農民에 의한 教育投資는 1960年代 이후의 高度成長을 可能케 한 重要한 要因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農村이 工業化에 負擔이

된 것이 아니라 工業化의 基盤을 造成하는 데 貢獻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徐教授는 高度成長의 要因으로 政府의 役割을 重要視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政策이 實踐에 옮겨서 結實을 보게 된 것은 政治的 및 社會的인 安定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安定에 대한 言及이 缺如되어 있다. 徐教授는 成長의 初期條件에서 企業의 經營能力(entrepreneurship) 및 行政能力에 대한 言及이 없다. 사실 解放前에는 韓國人 經營의 近代企業은 매우 적었고 行政經驗도 없었다. 따라서 解放後부터 1960年까지는 企業家의 企業能力 및 政府의 行政能力의 培養期였고 이것이 1960年代의 高度成長에 많은 役割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徐教授는 韓國經濟의 成長model을 輸出爲主의 工業化에 의한 것으로 規定함으로써 不均衡成長 패턴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均衡成長理論과 不均衡成長theory에 대한 論及이 없고 不均衡成長이 全體經濟成長에 미친 聯關效果에 대한 動態的인 分析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는 輸入代替產業→輸出產業擴大라는 工業化過程을 追求하면서도 戰略產業에의 集中的인 投資를 各計劃과 執行段階에서 행하는 不均衡成長 패턴을 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不均衡成長 패턴을追求할 때 한 產業發達이 가지는 前後方聯關效果의 多寡에 따라 國民經濟에서의 屈彎과 生產에 미치는 影響度가 다르다. 그러므로 不均衡成長을 開發戰略으로 택할 때는 각 產業이 갖는 他產業에 대한 聯關效果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된다.

全哲煥 教授*의 論評

1. (開發初期條件) 1960年代初 開發初期條件으로서의 韓國經濟는 二重構造와 開放體制下에 있었으며 다른 開發途上國과 比較하여 資本蓄積率이 낮고 輸出入額이 커다는 指摘에 대하여는 異論의 餘地가 없다. 왜냐하면 二重構造問題라던가 輸出入額은 지난 15年동안 相當히 緩和는 되었으나 現在까지도 解消된 것은 아니고 嚴然히 存在하고 있으며 開放體制 역시 持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徐教授가 分析한 成長要因 즉 Fei-Ranis模型(사실은 K. Marx라던가 A. Lewis 등의 所論을 發展시킨 것이지만)은 二重構造解消過程으로서는 發展初期의 農業發展에 대한前提條件을 充足시킬 수 없고 반면에 政府의 開發計劃, 戰略 및 工業化政策과 海外貿易部門의 役割이 韓國經濟의 成長을 結果한 것으로 分析한 점에 비추어 初期條件分析은 너무도 不充分한 것 같다. 왜냐하면 徐教授가 外援額이 커던 1950年代에 成長이 始發되지 못했

* 忠南大學校 副教授

된 것을 指摘하고 現在의 韓國經濟成長이 外資主導라는 점을 否認한 것 처럼 政府政策, 海外貿易의 役割만으로는 다른 外國 이를테면 印度라든가 泰國같은 나라가 왜 發展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說明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開發初期條件에 관해서는 社會經濟的側面으로 좀더 廣範하게 分析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를테면 Hoselitz教授의 成長條件分析 즉 遊休土地를 비롯한 其他의 可用資源(이 가운데는 人的資源이 包含된다)의 活用程度를 둘러싼 擴大思想과 保守思想의 對立意識, 貿易의 重要性에 따른 優位性과 從屬性의 有無 그리고 中央計劃에 根據하는 自生的 成長이냐 命令의 成長이냐 등의⁽¹⁾ 觀點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發展模型의 定立(그것이 비록 時間的 短期性으로 因하여 暫定的일 지라도)과 관련하여 開發初期條件의 分析은 C. Bettelheim流의 ① 植民地를 經驗하고 아직 從屬狀態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植民體制의 終結과 그 후에 오는 帝國主義의 同調勢力인 社會階層 및 政治集團의 排除로 이루어지는 政治的 獨立, ② 外國大資本의 吸收, 그들 資本이 所有한 플렌테이션, 鎮山 및 기타 企業의 國有化를 意味하는 經濟的 獨立, ③ 帝國主義와 結託한 寄生階層을 消滅시키는 社會的 變革의 問題 등⁽²⁾도 分析되어야 비로소 開發初期의 成長始動可能性 問題가 說明되고 그 이후 發展過程 역시 올바르게 分析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發展model의 徐教授도 指摘한 것처럼 社會全體의 近代化이며 複合的인 要因에 의해서 定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1960年代初의 韓國은 4.19 등의 社會經濟 및 政治的 變動過程을 통하여 民族的 主體意識, 自然資源은 없었지만 擴大主義, 그리고 熟練技術人力은 아니었지만 適應力이 높은, 教育받은 人間資源活動可能性 등이 大衆속에 깊숙히 뿌리 박혀 있었던 점은 充分히 分析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본다. 나아가 初期條件으로 보아 다른 選擇可能한 發展model은 없었는가에 관한 分析도 併行했어야 現model의 方向이 明白히 浮刻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2. (發展model) 韓國經濟發展model을 規定함에 있어서 徐教授는 時期尚早를 理由로 明白한 定義를 하지는 않았지만 論文속의 暗默的인 定義는 「政府 및 輸出主導」임을 말한 반면 「外資主導와 階層深化에 의한 資本形成」問題는 否認 내지 無視하였다. 그러면서도 政府役割 가운데 政府貯蓄問題는 重視하였는데 經濟發展概念을 S. Kuznets나 G. Meier와 R. Baldwin 등⁽³⁾의 定義처럼 外形的 現象中心으로 定義하더라도 發展過程이 資本의 蓄積 내지 形成임을

(1) Conference on the State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1956 and 1959. *The State and Economic Growth*, edited by Hugh G.J. Aitken,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 Charles Bettelheim, *Planification et croissance accélérée*, 梅津和郎譯, 『經濟開發と計劃』, 東京

(3) G.M. Meier and R.E.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Lord Robbins,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cmillan.

否認할 수 없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韓國經濟의 成長이 外資와 階層深化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점은 徐教授論文 表 5와 林鍾哲教授論文중 高度成長의 陰影 등에 비추어 自明한 것 이 아닌가 본다. 더구나 國內貯蓄에 있어서 政府貯蓄의 寄與度가 커다는 점을 指摘한 徐教授가 政府貯蓄 가운데 外資의 比重이 대단히 커다는 점을 看過하고 韓國의 經濟發展模型의 定立에서 적어도 資本形成面에서 政府主導=外資主導性을 왜 否認하였는지는 特히 疑問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더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外資比重이 커다는同一 한 條件은 1950年代에도 있었는데 當時에는 成長이 始動되지 못했다는 것이 問題로 될 것 이나 이것은 開發初期條件問題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開發初期條件의 說明 不充分에 不過한 것이다.

政府貯蓄과 公共借款(經常價格) (單位 : 億원)

年 度	政 府 貯 蓄 (A)	公 共 借 款 (B)	B/A (%)
1962—1966	1,569	206	13.1
1967	619	283	45.7
1968	1,066	188	17.6
1969	1,683	422	25.1
1970	1,691	351	20.8
1971	1,944	1,126	57.9
1972	2,200	1,204	54.7
1973	2,653	1,466	55.3
1974	2,832	1,260	44.5
1975	5,837	2,878	49.3

註：公共借款이 반드시 政府貯蓄분에 包含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큰 比重이므로 政府貯蓄源의 構成을 보는데는 別問題가 없을 것임.

資料：經濟企劃院

한편 徐教授는 韓國經濟의 發展經路에 있어서 現在는 賃金上昇으로 인하여 賃金對 利子率의 比率이 커지고 그 때문에 勞動을 資本으로 代替하려는 強力한 誘因이 되므로 새 成長線이 Compelz curve型으로 變化되는 段階에 있다는 것을 論文에서 說明한 바 있다. 특히 그 變曲點을 1980年初가 될 것으로 보고 그 對策이 時急한 것으로 說明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經濟成長이 갖는 本質的인 經路로 보아 그와 같이 成長率이 언젠가는 鈍化되어 變曲點이 생기고 Compelz curve型으로 되리라는 것을 否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왜 賃金上昇에 의해서만 基因하는 것처럼 說明하고 있는지는 크게 疑問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설사 賃金水準이 上昇하더라도 勞動의 質이 높아진다면가(해로드 中立的인 경우 등)⁽⁴⁾ 또는 아직도 充分히 많은 單純勞動力의 技術人力化가 이루어지면 勞動力의 實

(4) R.G.D. Allen, *Macro-Economic Theory*, Macmillan. 稲田獻一・宇澤弘文 共著, 『經濟發展と變動』, 東京.

質的인 參加率이 높아져서 이와 같은 成長鈍化經路는 解消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흔히 이 점을 無視하고 賃金上昇이(現在는 오히려 生產性向上에 너무나 미치지 못해서 걱정이지만) 經濟成長을 鈍化시키는 것 처럼 보는 경향이 많은데 좀더 檢討되어야 할 줄로 안다. 뿐만 아니라 설사 賃金上昇에 의하여 成長率이 鈍化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發展模型을 定立함에 있어서 어떤 關係가 있는지, 아니 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重要한 本質의 問題인지는 꽤 의아스럽다. 깊이 생각 해 볼 問題이다. 그것은 다만 成長經路의 問題에 不過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그것은 別途로 分析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3. (重化學工業化 育成問題) 徐教授는 產業構造高度화의 問題에서 比較優位性만을 強調하면 重化學工業化에 蹤趺이 생기고, 成長目標만을 고집하면 國際收支惡化를 招來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調和하기 위해서는 投資事業의 個別審查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徐教授는 重化學工業化가 반드시 國際收支惡化를 招來하거나 또는 그럴 危險性이 있으므로 投資事業의 個別審查를 통하여 是正하여야 한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重化學工場建設이 반드시 國際收支惡化를 招來하는 것은 아니다. 問題는 重化學工場建設을 위한 外資導入 및 國內技術參與姿勢에 달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工場建設 특히 工場導入時의 價格比重은 實際 物資部門이 60%미만이고 나머지는 設計, 技術 등의 特許, 監督 등의 用役費이다.⁽⁵⁾ 거기다가 보이지 않은 條件附 費用(double tied loan 등)이 加算되는 경우 非物資費用比重은 더욱 커지고 이것 때문에 重化學工場建設에 의한 國際收支惡化가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經濟의 從屬性이 清算되어야 하는 바 그를 위한 方法으로는 工場導入에 있어서 1次的으로 一括導入方式(turn key base plant construction)을 止揚하고 non-turn key base 工場建設 등에 의한 國內設計 및 監督 등의 技術向上에 의하여 home cost를 높이는 한편 기타 契約條件 등을 有利하게 調整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分明히 選擇의 問題인 것은 틀림 없지만 그 背景에는 對外經濟에 대한 國民經濟의 主體的 自立성이 어느만큼 確立되어 있는가의 問題가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經濟發展의 條件 내지 發展model의 問題와 連結하여 考慮되어야 할 점이지 單純히 投資事業의 個別審查의 問題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投資事業의 個別審查方法이 援用되기는 하나 대체로 個別審查에서는 앞서 말한 姿勢의 問題를 全部 다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韓國機械工業振興會, 「一括導入方式에 의한 工場建設에 관한 調査研究」, 서울.

韓昇洙 教授*의 論評

徐教授의 論文의 內容은 크게 三으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10餘年간 한國經濟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要因이 무엇인가에 관한 分析이며 둘째는 既存模型 및 他國의 發展歷程과 한국경제의 發展모형을 比較하는 것이고, 세째는 한국경제의 發展 方向을 提示한 것이다.

徐教授는 韓國經濟의 初期的(즉 1959~61年) 特徵은 Fei-Ranis流의 二重構造的 經濟이며 Arthur Lewis流의 過剩勞動經濟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 經濟는 이미 開放狀態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개방경제 상태가 Hla Myint流의 古典理論的 國제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한 언급이 없으나 그의 論文은 古典學派의 精神에 입각하여 쓰여진 것 같다. 특히 Fei-Ranis의 二重經濟開發理論에 대해 論評한 徐 교수는 이중 Ranis 이론의 한국경제에의 적용 분석을 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반적으로 Fei-Ranis의 古典學派의 二重構造經濟 接近法에 대한 비판을 加하고 新古典學派의 理論의妥當性을 인정한 Jorgenson의 글을 Fei-Ranis模型에 대한 評價論文으로 引用하고 있으나 Jorgenson의 글의 내용을 비판한 Stephen Marglin의 論評을 나는 같이 권하고 싶다.

특히 全文을 통하여 문제되는 것은 初期단계 이후 아직도 한국 경제는 二重構造의 過剩勞動經濟인지?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經濟構造가 어느 단계에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것 같다. 혹은 아니면 이미 二重的 經濟構造를 탈피하고 Fei-Ranis 模型의 경제성숙기에 돌입하였는지를 分明히 하지 않고 있다.

徐 교수는 成長要因의 分析과정에서 그 要因으로 정부의 역할, 後發國의 利得, 投資와 海外자축, 貿易과 工業化政策을 들고 있다. 우선 經濟成長過程에서 政府主導의 開發촉진 효과를 否認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支出정책 특히 公共投資行爲와 간접적으로 租稅정책 혹은 금융정책 등에 의하여 具體화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公共부문 변수의 크기와 効果分析의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後發國의 利得에 관한 부문에서는 1952년 발표된 Gerschenkron의 이론을 원용하고 있으나 1934년 「일본의 기회」라는 글에서 Thorstein Veblen이 이미 latecomer nation의 이득을 기술한바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成長要因에서 排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 경제성장분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要因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으로企業家精神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가 정부주도적 개발형태를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부응하는企業人들의 意慾과企業家들의「動物的 精神」은 한국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둘째, 他模型과의 比較 내지 外國과의 비교는 本來 의도에 미하여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論評의 대상이 될 部分이 있는 것 같다.

세째, 한국 경제의 方向提示를 徐교수는 발전모형의 過渡期의 特징이라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서교수는 앞으로의 基本方向은 高度成長의 持續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徐教授의 과도기적期間은 구체적으로 어느期間을 두고 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과도기간」동안에 문제되는 政府의 역할, 企業家精神의 진작 등에 관한 깊은 方向 설정이 필요한 듯하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과 公共부문간의 자원 배분의 문제(특히 동태적 측면에서의 고찰), 公共部門내에서도 공공소비와 公共투자, 公共投資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간의 배분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고도경제성장요인으로 지적된 후발국의 이득은 경제가 성장하고 공업부문이 확대되어 定着化됨에 따라 더 이상 이득으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國內 고유한 기술혁신(indigenous technical change)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확대해 가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生產의 增大가 고용增大目標와 상충할 수 있다고 徐教授는 전망하지만 와타나베는 1965년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誌에 발표한 글에서 「일본의 초기 공업화 단계에서 기술혁신이 공업부문의 労動力의 80%를 흡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국내 고유의 기술혁신은 失業의 문제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徐教授는 제1단계와 제2단계의 同質의 요소로서 對外指向의 개발전략을 지적하고 있으며 후발공업국으로 이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지향적 개발계획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후발공업국의 단계에서 벗어나면 한국경제는 대외지향적 개발계획을 포기해도 좋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나 우리의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은 최소한 부존자원의 결과로 연유되는 것이므로 경제개발의 水準과는 獨立的으로 계속되어야 할 政策方向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 論文의 성격과 구조상 필요없이 비중이 큰 表로는 表 7의 類別 농산물 생산의 성장을, 表 8의 산업별 취업인구와 구성비인 것 같다.

내용중에서(p. 503) 한국 경제의 초기 조건으로 특히 1959~1961年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 4. 19와 5. 16 등 사회적 격동을 겪은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1957~59年이 초기 조건으로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表 5(p. 511)의 저축률은 최종년도가 1973년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최종년도를 評價하고 있으나 이미 발표된 1974년과 1975년의 저축률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해외저축의 比率을 살펴볼 때 日本 등과 경제협력관계가 惡化되었던 1973년은 가장 낮은 15%였으나 1974년에는 43%, 1975년에는 41%로 나타나 非正常的 年度인 1973年을 代表值로 설정할 때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510페이지의 ICOR는 2.3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아 生產增大要因을 투자율의 증가로 지적하면서도 512페이지에서는 ICOR가 2.58로 부터 1.44로 감소되어 생산시설의 이용도擴大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모순된 評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19페이지의 表 11의 제조업부문의 자본—노동에서 자본對 노동 비율이 增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規模收益一定의 生產函數을 상정할 때 rental/output ratio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 비율이 감소한다고 인용한 Roemer의 글 내용과는 모순되지 않는가 싶다.